

# 美하원, 홍콩시위 지지 3개 법안 통과

### 중영협력 평가해 통상 특별대우·시위 진압 장비 수출 금지 中 외교부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반격 조치 예고

미국 하원에서 15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3개의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곧바로 중국 정부가 반드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홍콩 시위 사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할지 주목된다.

AP와 로이터 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3개의 홍콩 관련법 중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두 번째 법안에는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규탄하고 홍콩 시민의 시위권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법안에는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무탄과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대 홍콩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 구두표결(voice vote)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은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홍콩 시민들과 단결하고 있다”며 “반약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에서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3개의 홍콩 관련법과 함께 작년 12월 캐

나다에서 체포한 명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미국의 인도 요청에 응하도록 캐나다 정부에 권고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도 이날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미국 정부는 명 부회장을 은행사기, 기술절취,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캐나다 정부로부터 명 부회장의 신병을 인계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원에서 발의된 홍콩 관련법은 여전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에 관여하는 한 상원의원의 보좌관은 상원에 발의된 법안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상원에서 관련법 표결이 이뤄지면 하원은 이 문제를 다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외교 사안에 대해 ‘분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 대변인은 “현재 홍콩이 마주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과 혼란의 조속한 진압”이라며 “홍콩의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리커창 중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해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리커창 총리 삼성 시안 반도체공장 방문

### 中인민일보 1면 보도... ‘한한령’ 해제 계기될지 주목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리커창 총리의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을 1면에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16일 자 1면 하단에 리커창 총리의 산시성 민생 및 산업 현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기사 내용 중에 지난 14일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인민일보는 리커창 총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에서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개방 확대를 견지할 것이며 중국에 등록된 내외자 기업을 동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기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하며 각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정부장은 지난 14일 리커창 총리의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하면서 이 공장에 총 150억 달러가 투자된다며 집중적으로 조명해 바 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다.

리커창 총리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관영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파동 이후 중국내 한국 기업과 문화 콘텐츠 등에 가해졌던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태풍 하기비스 경제·산업 타격

### 아베 “추경 포함 재정 조치”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일본의 경제·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동일본 각지에서 침수로 인해 생활 기반과 교통망에 문제가 생긴 것 외에 생산시설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동일본 각지의 공장·상업시설이 피해를 봤으며 부품 공급망을 따라 산업 생산에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16일 보도했다.

나가노 시에 있는 버섯 제품 생산업체 ‘호쿠토’는 새송이 생산시설이 침수돼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히타치 아이시시스템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 시에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만드는 사업장이 침수됐지만, 복구 시점을 말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형 물류회사들은 전날 태풍 피해 지역의 집하 및 배송을 시작했으나 아직 서비하지 못하는 지역이 남아 있다.

자동차 업계도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게차 생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는 아이치 현 다카하시시 공장의 가동을 16일 이후 수일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통신은 고리야마 중앙공업단지 일대에 침수 지역이 많은 상황이고 태풍 피해가 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산업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 도쿄에서 동해에 인접한 이사와와 현 가나자와시를 잇는 호쿠리쿠 신칸센 고속열차의 3분의 1이 침수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연합뉴스



파리 행진하는 프랑스 소방관 시위대 프랑스 소방관들이 15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퇴직연금 개편 중단 등을 요구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日중앙은행 보고서 “한국손님 격감·수출 회복 전망 없어”

여행 거부·수출규제 영향 공식화

한국에서 확산하는 일본 여행 거부 운동과 일본이 강행한 수출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공식 보고서에 반영됐다.

일본은행이 15일 펴낸 지역경제보고서(사쿠라리포트)를 16일 확인해보니 한국인 여행객 감소의 영향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쓰시마 시내에서 한국인 단

체 손님의 취소에 의해 숙박 손님이 격감한 것 외에 나가사키 시내에서도 8월 후반 이후 취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나가사키 숙박업계의 평가가 보고서에 반영됐다.

홋카이도 삿포로의 행정기관은 “최근 일한 관계의 영향에 의해 주로 단체 손님을 받는 호텔이나 여관 등에서 손님 수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인 여행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나

자와 지역도 향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 상황 우려는 수출 등 산업 분야에서도 표출됐다.

도쿄를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와 야마나시현·나가노현·니가타현을 포괄하는 간토코신에쓰 지역의 수출 동향을 진단한 부분에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니 한국기업의 재고 수치가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려된다는 의견이 담겼다. /연합뉴스

## 종말 기다리며...9년간 지하실에 숨어 산 가족

### 네덜란드 감금생활 6남매 구출

네덜란드 북동부 드렌터의 사골 마을에서 ‘종말’을 기다리며 9년간 지하실에 숨어 지낸 일가족이 경찰에 발견됐다.

BBC방송과 일간 가디언은 가족 몰래 지하실을 탈출한 남성이 마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 역할을 해온 58세 남성과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여섯 자녀로 구성된 이들 가족은 외딴 농가의 지하실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기행은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25세 남성이 인근 술집에 나타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술집을 운영하던 크리스 웨스터빅은 남성이 가게에 들어와 “혼자서 맥주 5잔을 주문해 마셨다”면서 이후 남성이 “자신은 도망친 상태이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성이 긴 머리에 지저분한 수염을 기르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혼란

스러워 보이는 인상을 줬다고 묘사했다.

남성은 스스로 자신은 학교에 가 본 적이 없으며, 지난 9년 동안 이발소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터빅은 남성이 “농장에 형제와 자매가 있다”며 “자신이 형제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털어놓았고 덧붙였다.

신고로 접수한 경찰은 남성이 살던 농가를 수색했고, 거실 찬장 뒤에서 지하실로 이어지는 숨겨진 계단을 발견했다.

지하실에서 구조된 나머지 자녀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함께 발견된 58세 남성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아버지로 알려졌던 50대 남성이 실제 자녀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며, 이들이 숨어 지낸 농장도 다른 농장주로부터 그가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 현지 매체는 이들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근처에 묻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